

연중 제 4 주일

기도서 337면 (A해)  
 제1독서: 스 바 2,3; 12-13  
 제2독서: I 고린 1,26-31  
 복 음: 마 태 5,1-12a

#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 강론



## 한 말씀

### 안복진신부

우리 주교님은 87년 사목교서 서두에 “우리 교구를 보다 더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겠고, 또 조상들의 탁월한 신앙과 모범된 생활을 밑거름으로 우리 자신을 쇄신함으로써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여러분! 자치교구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복음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며 동시에 사도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화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화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대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니 이제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골로사이 1장 22~28).

우리는 복음화의 문제 거론에 앞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의 깨달아야 하겠지요. 복음은 곧 ‘영생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희망이요 행복입니다. 가장 귀한 인간생명의 영원한 긍정 곧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사도들도, 우리 선조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의 온갖 힘을 기울였고 드디어 생명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첫 사명이 자신의 성화입니다. 또 성화된 자신은 그대로 있을 수도 없지요. 빛은 비추어야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화된 우리는 성화의 빛을 우리 주위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성화와 복음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 간택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다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진 지 어언간 20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 시대는 아직도 복음의 황무지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구의 3%가 가톨릭 신자이고 97% 이상은 아직도 복음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결론이 되지요. 백평의 땅이라면 겨우 두 평 세 평 밖에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아직도 미개척의 황무지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주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바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들입니다. 불림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아야 하는 황금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쳐서 많은 고기를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데 전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영등동 천주교회)



## 작은 복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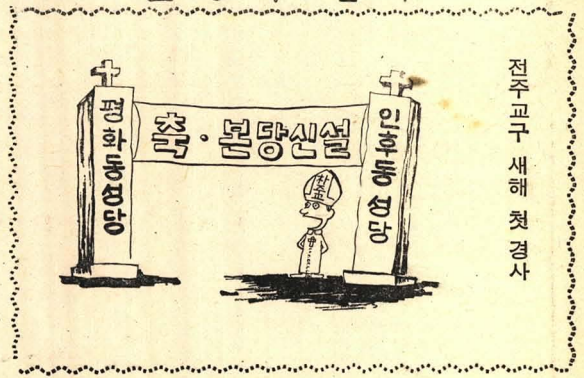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나 많다. 남북통일, 민주화, 경제성장...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채워야 할 바램도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도 새해에 바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오히려 우리 귀에 들려온 소식은 한 젊은 대학생의 역을 한 죽음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막힌 비보였다. 차라리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더라면 하는 심정이었다.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도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이보다도 더 비통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 역을한 그것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분노는 하늘에 닿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내 죽음, 내 자식의 죽음으로 받아드린다. 그래서 새로운 미움이 우리들을 갈라놓고 만다. 이 얼마나 필요없는 비극의 악순환인가?

오늘은 음력 초나흘날, 작은 소망으로도 기쁘게 살았던 조상님네들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소망을 빌어본다. 머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에는 사람이 사람대접 좀 받고 살았으면 싶다. 처녀가 성고문을 당했는데도, 그 피해자만 다른 죄목 때문에 처벌을 받는 꼴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을 더 이상 용공의 색깔로 보지 않아야 한다.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린 양심있는 젊은 의사가 더 이상 이상한 여행길에 나서지도 않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부권이니 사면이니 하는 말들도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 민주화를 부르짖는 젊은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즉시 중지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복소리에 담아놓고 싶은 조그마한 이 소망들, 부질없는 꿈인가? 그럴 수는 없다. 꼭 이루어야 한다. 빌고 또 빌고, 그리고 꿈틀거리자.

## 순정이 산책



전주교구 새해 첫경사



# 교구, 지구개편 단행

## — 2월부터 5개지구에서 10개지구로 —

교구 사제평의회에서는 교구내 지구에 대한 개편과 신설본당 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했다.

### 1. 지구개편

- (1) 북전주—중앙, 덕진, 금암, 순정이, 인후, 동산
- (2) 남전주—전동, 노송, 복자, 서학, 효자, 평화, 상관
- (3) 군옥—둔울, 월명, 팔마, 오룡, 대야, 옥봉
- (4) 이리—창인, 주현, 영등, 신동
- (5) 정읍—시기, 연지, 고창, 신태인
- (6) 임순남—임실, 순창, 남원
- (7) 김제—요촌, 신평, 부안, 원평, 수류
- (8) 무진장—무주, 진안, 장계, 장수
- (9) 삼례—삼례, 고산, 여산, 금마
- (10) 익산—합열, 황등, 용안, 화산

### 2. 신설본당 구역

- (1) 인후본당—서중학교에서 진안 나가는 구도를 중심으로 나눈다. 현 중앙 소속의 간중티 공소와, 현 노송 소속의 5개 공소는 인후성당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하며, 완공후 인후본당에 귀속시킨다.
- (2) 평화동본당—서서학동 공수내 다리를 중심으로 나누며, 수류본당 소속이던 우름티와 양생공소는 평화동본당으로 귀속시킨다.
- (3) 서학동본당—전동본당 소속으로 교동의 일부인 한벽교 다리 상부를 서학동 본당으로 귀속시킨다.

### 3. 신설본당 예정지 선정

전주(화산동, 서신동), 군산(나운동), 남원, 이리(송학동)을 신설본당 예정지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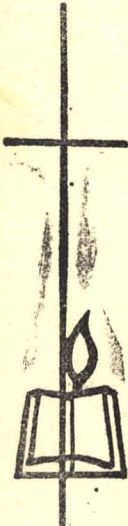
### 성서교실 74

##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

마태오복음 5장 3~10절은 전부 같은 형식이다. 처음에는 「행복하다」, 다음에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맨 나중에는 「그 이유가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그것이 되어 있다. 「행복하다」(마카리오스)는 말은 「다행하다」, 「지복(至福)하다」라는 뜻으로 「화를 입을 것이다」의 반대 말이다. 보통 히브리 말로는 이런 뜻이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신명33:29).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시 1:1). 그러나 희랍말로 표현된, 예수의 「행복론」은 구약의 시인(詩人)들, 예언자들의 그것보다 그 뜻이 훨씬 깊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모든 불화, 투쟁을 배제하는 사람, 지상을 평화스럽게 만들려는 사람을 말한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라틴말로는 「파치피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태평양」이라고도 한다. 동사 「에이레노 포이에오」는 신약성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느님과 우주만물 간의 「평화성취」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골로 1:20). 「에이레네」의 뜻보다 「샤롬」의 뜻이 더 강하다.

「샤롬」(평화)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는 지상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했다(예레 6:14).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행복」을 평화라고 그들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약의 「에이레네」도 광의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는 평화의 마음(롬 5:1)을 말한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일러진 「평화」는 하느님과 평화 의미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 화합을 이룩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75-2203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현대미용학원**  
•자격증 •해의이민  
•유학코스 •연구반  
•피부미용  
☎ 4-9206  
코아백화점 옆  
김 금 순(메레사)

베소라성서 강의  
**12 사도의 연구**  
(마르코 3:16-19)  
일시 : '87년 2월 6일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 교 구 소 식

1. 50주년 상임위원회 : 3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예비자 교리반 개강 : 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강당
  3. 섬소자 모임 : 15일(일) 오후 2시, 대상-중·고·대·일반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4. M·B·W 복음선교 코스 : 2월 23일~25일, 마감-13일까지 접수(교육국)  
회비-25,000원
  5. 사람의 다리 후원회 미사 : 2일 10시30분,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6. 섬모의 푸른군대 피정 : 2월 5일(목), 장소-덕진천주교회
  7. 베소라성서 개강 : 6일 오후 7시30분~9시30분(매주 금요일)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비-매주 1,500원  
문의-베소라성서 연구원(72-4978)
  8. 로사리오 정기총회 및 성지순례 : 일시-2월 8일 9시~17시,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묵주 및 성가책(성지순례에 따른 간단한 복장)  
※ 내부공무원 신자들은 많은 참석바람
  9. 젊은이 형제의 모임 : 2월 1일 오후 5시,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10. M·E 15차 다리피정 : 8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11. 중·고 지도자 정기연수회 및 정기총회  
일시-2월 7일~8일(1박 2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본당 중·고지도자 및 예비지도자  
회비-시지역-5천원, 그외 지역 4천원
- ☐ 전화번호 안내 : 인후동 천주교회 74-1929  
팔마 천주교회 사제관 42-1623, 사무실·수녀원 3-9197

##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오후 2시~4시)

일	요일	담 당 신 부	일	요일	담 당 신 부
1	일	김 동 준 신부	8	일	현 유 복 신부

### ♣ 잠 간 !

「우리 본당은...」

우리 본당의 교우들끼리는 낯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본당의 교우들은 아무리 먼데서 마주쳐도 일별에 그치지 않고 달려가 손잡고 인사한다. 주일날 아침 성당 입구에는 일주일의 인사를 나누는 교우들의 혼잡스러움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미사중에는 바늘끝 떨어지는 소리도 다 들릴 만큼 엄숙 조용하고 늦게 오는 신자가 하나도 없다. 더구나 좀 덥다고 주보를 부채삼아 파닥거리거나 난로 옆에만 웅크리는 신자는 도대체 몇말이다.

신자들은 언제나 앞줄부터 차례차례 앉기 때문에 꼭 보면 누가 먼저 왔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미사가 끝났어도 요지부동이다. 끝까지 퇴장성가를 마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면 신부님과 신자들, 특히 처음보는 신자들은 꼭 악수를 나눈다. 새로 영세받은 신자들은 도무지 악수세례 때문에 손이 얼얼할 지경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본당이다. 이천년대의 본당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우리 본당이다.

## 요심이 (704) 김병오

물고문사건 수사 발표  
내용 의문점 많다



고문 경관없이  
비공개 현장 검증



저기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구나!



##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4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 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1987년 2월 14일(토) 오후 1시
3. 장소 : 전북예술회관(구 시청 옆) 4층 공연장

### 3. 부의안건 :

※ 총회참석시 지참물 : 조합원통장, 주민등록증, 인장  
1987. 1. 31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증 두

### 관인 손모아 주산 암산 학원

## 87년 원아모집

1. 교육내용 : 주산, 문자, 숫자, 미술, 산수, 웅변
2. 모집기간 : 87.1.5~87.2.28
3. 예비소집 : 87.2.20 오후 2시
4. 지도교사 : 4인 · 초·중·고 주산·부기 책임지도  
삼천동 쌍용아파트상가 2층  
원장 : 김 명 옥(울리엃다)

### 가톨릭신문 전주지사 사무원 모집

1. 자격 : 신자로서 87년도 고교졸업예정자(남자)
2. 구비서류 : ①본당신부 추천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 전주 시내 거주자에 한함(면접후 개별통지)
3. 문의전화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전화 5-0041~3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이재후  
수·사 2-7032 사목회장 노인석  
아파트 75-6389

1. 금주는 성체 주일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기도 합시다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님, 사목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본당 울드레아: 오늘 저녁 7시 남·녀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예수성심회 월례회: 3일 어머니미사 후
  5. 주의 봉헌축일: 2일, 미사중에 초 축성예식이 있으니, 가정마다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6.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많은 참여바람
  7. 사목회 임시회의: 2일 저녁미사 후 주임신부님 부임후 첫모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8. 미사에 대한 주의: 주일 공식미사에는 개인미사 없음, 구역이나 가정을 위한 미사는 2주간 신청하세요
  9. 본당 직원회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0. 다음주 전례담당  
해설-최명자, 독서-봉헌-배기창·구순자  
신자기도-손만술·신순이, 촛불봉헌-최재인·김윤자
- 지난주 봉헌금: 645,340원 교무금: 809,900원  
신축금: 300,000원 구라주일금: 280,2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1. 수녀님 인사이동: 그동안 우리 본당을 위해 수고하셨던 김주시아·이세시리아 수녀님께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제대회: 5일 오전 10시미사
  3. 성가대 월례회: 6일 오전 11시
  4. 첫철례: 7: 7일 저녁 7시, 성체강복
  5. 초축성: 2일 저녁 7시
  6. 주일학교 개학: 7일 오후 3시-교리 4시-어린이 미사
  7.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8. 금주 성당 청소: 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9. 금주전례: 해설-이강림, 독서-①유경수 ②정진협  
봉헌-윤옥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안운정 ②윤옥근  
봉헌-이석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4,910원 교무금: 579,250원  
미수교무금: 116,500원 구라주일금: 156,710원

(살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1. 주의 봉헌축일: 본당과 각 가정에서 1년간 쓰일 초를 봉헌합니다, 접수-사무실, 1차루-1천원  
미사-저녁 7시미사
2.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3. 사목회: 공식미사 후
4. 제대회: 5일 저녁미사 후
5. 50주년 헌금: 이상울-2만원, 강정순-1만5천원, 박성열-1만원
6. 감사: 순정이 은인-황옥섭(1구좌)

(서화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덕환  
사무실 "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2-2276

1. 꾸리아: 오늘 오후 3시
  2.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3. 봉성체: 6일 오후 2시
  4. 다음주 모임: 프란치스코 형제회
  5. 예비자교리: 일반-공식미사 후 학생-토요일 오후 6시
  6. 금주전례: 해설-최창림, 독서-①장현주 ②유용산  
봉헌-제12반  
차주전례: 해설-김은경, 독서-①강기호 ②김한기  
봉헌-제13반
- 지난주 봉헌금: 320,380원 구라주일금: 57,66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1. 주일미사: 오전 8시-학생미사, 오전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4시-어린이미사, 저녁 7시30분-저녁미사
  2. 평일미사: 월·화·수·금-저녁 7시30분 미사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3. 초축성: 8일 10시30분-공식미사 때
- 지난주 봉헌금: 342,04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이덕근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베지아 사무실 83-5085번

1. 재속 글라라형제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유아세례: 7일 오전 11시
  3. 사목회 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연습시간-목요일 저녁미사 후(성당 연습실)
  5. 베소라성서: 회당자는 사무실에 접수바람
  6.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공식미사 후, 토요일(학생)-오후4시  
화요일(노인)-오후 2시  
수요일(직장인)-저녁미사 후
  7. 50주년 기념헌금 신입 안하신 세대: 사무실에 신입바람
  8.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9. 교무금: 86년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내주시고 87년 교무금 신입해 주세요
  10.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교리교사에게 문의 바람
  11. 차주전례  
첫 미사: 해설-오경미, 독서-①이주영 ②최정식  
8시 30분: 해설-최윤경, 독서-①유광수 ②손휘부  
공식미사: 해설-최중만, 독서-①안득수 ②이영태
- 지난주 봉헌금: 1,028,710원 교무금: 695,000원  
구라주일금: 310,640원

(평화동)

사제관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사목회장 김광환

1. 예비자교리: 매주 일요일 저녁미사 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2월 22일부터 시작함
  2. 사목회의: 1일 저녁미사 후, 사제관
  3. 평일미사: 월-오전 6시, 금(어머니미사)-오전 10시  
화·수·목-오후 7시
  4. 유아세례: 매월 첫주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5. 봉성체: 매월 둘째주 금요일
  6. 87년도 교무금신입: 자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7. 본당 앰프 마이크 설치 은인을 구합니다
  8. 본당 여사무원 채용: 자격기준-①1월 25일 현재 본당에 교직을 둔 자 ②23세 이하인 열심한 미혼여성 ③주산·부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④타자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신청서류-①주민등록등본 1통 ②자필이력서 ③자격증 각 1통 ④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9. 금주전례: 해설-박병환, 독서-①김화영 ②김나섭  
봉헌-11반 가정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권학열 ②강수중  
봉헌-12반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55,490원 2차 특별헌금: 18,470원  
계: 173,96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중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1. 중·고등부 예비자교리: 2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5시30분
2. 사목회의: 7일 저녁 8시
3. 성모기사회: 7일 오후 1시30분
4. 축하합니다: 진효철(꾸르실리스타)
5. 모임: 오늘-꾸리아, 차주-글라라회